



말씀의 초대 | 에스더 4장 12~17절

하나님의 인도하심



허상범 목사
서울변화시키는교회
인원지침회장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불쌍한 처녀 에스더를 삼촌 모르드개가 거두어 페르시아에서 포로의 삶,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왕궁의 왕비 자리가 비어 공개적으로 왕비를 뽑는다는 소식을 모르드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소 예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에스더도 왕비가 되고자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에스더가 페르시아제국의 왕비로 뽑히게 됩니다. 나라를 잃은 설움을 가지고 힘없이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더가 왕비가 되면서 크게 기뻐하며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했던 하만이라는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모르드개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할 수 있는 왕비 에스더에게 모르드개는 자신들을 살려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에스더는 모르드개에게 현재 상황이 어렵지만 자신도 금식 기도를 한 후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왕에게 나아갈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은혜의 말씀은 먼저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1)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힘없고 뺨했던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페르시아

의 왕비로 세우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계획을 잘 수립하고 나아갈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좋은 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에게도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왕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계획하고 열심히 준비하여 우리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 믿음대로 이루어집니다.

모르드개의 믿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았습니다. 모르드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가 구해야 한다는 말을 들은 에스더는 솔직히 현재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 합니다. 자신도 지금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 30일이 되었고, 왕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왕에게 나아간다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모르드개는 14절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멸망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르드개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져주십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곤경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비판을 넘어 기도로 나라를 세우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오늘날 대한민국은 정치적 갈등과 분열이 깊어지고 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도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어떤 사람은 지지하고 어떤 사람은 강하게 비판한다. 특히 인터넷과 언론 유튜브와 SNS에서는 대통령을 향한 거친 비난과 조롱이 끊이지지를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교회 안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일부 그리스도인들까지 정치적 감정에 휩쓸려 상대를 정치하고 지도자를 향한 거친 용어를 사용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먼저 질문해야 한다.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을 했을 때 성경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어떤 태도를 요구하는지 깨달아야 한다.

성경은 결코 악을 선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먼저 불의를 참작하고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먼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명령하는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도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권면한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감사로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말은 하나님께서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먼저 비난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먼저 미워하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나라와 지도자가 바른 판단을 하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책임이라고 말씀하셨다.

사도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로마 황제는 결코 신앙적 지도자가 아니었다.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였다. 그럼에도 성경은 황제를 위하여 기도 하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다. 구약성서에도 같은 말씀을 발견할 수가 있다. 사울왕은 하나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는 비판 자체가 아니라 비난과 증오의 언어이다. 상대를 악마화하고 인격을 모독하며 저주하는 말들이 넘쳐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모습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오늘날 대한민국에는 비판하는 사람은 많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매우 적다.

그리스도인 갈등 확대 보다

화해와 평화 이끄는 메신저 되어야

님의 뜻을 거역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윗은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호와와 기를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면서 손을 대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고 자신의 손으로 복수를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성경이 지도자의 잘못을 덮으라고 가르치는 말씀은 아니다. 선지자 나단은 다윗 왕의 죄를 분명하게 지적했다. 엘리야는 아합왕의 죄를 책망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의 불의를 꾸짖었다. 그러나 그들의 책망은 증오나 모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상대를 향한 저주의 증오가 반복된다면 우리 사회의 갈등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입장을 가질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사실과 정의, 사랑과 절제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이 목적이어야 한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장관이든 모든 권력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존재들이다. 따라서 우리는 법과 정의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되, 동시에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공의의 겸손을 주시도록 기도 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비난만으로 세워지지 않는다. 경제도, 보안도, 국민의 통합도 서로를 향한 증오 속에서는 이루어질 수는 결코 없다. 나라가 바로 서려면 먼저 기도가 살아야 한다. 교회가 먼저 화해해야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갈등을 확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적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 어느 지도자를 평가하든, 그리스도인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한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공적 책임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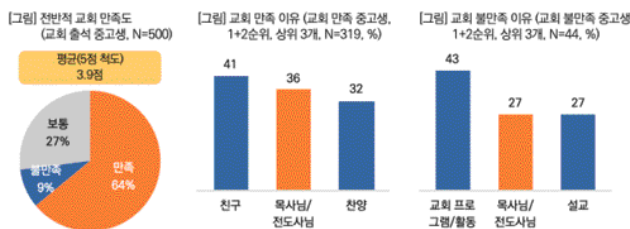
오늘도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모든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들이 정의를 행하고 국민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결정을 내리도록 간구해야 한다. 그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며, 성경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이다.

조석환 장로
명일교회 원로



다음세대 예배의 비밀, 신앙의 질 회복이 더 급선무

중고생 절반만 복음 확산... 교회 이탈 고민은 10명 중 4명



목회데이터연구소와 (사)꿈이 있는 미래가 공동 발간한 ‘한국교회 다음세대 트렌드 2026’은 한국교회 다음세대 사역이 단순한 출석 회복을 넘어 신앙의 본질과 교육 시스템을 새롭게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조사에 따르면 코딩·AI 이후 성인에

배 참석률은 이전의 97% 수준까지 회복됐지만 교회학교는 81%에 머물렀다. 또한 교회에 출석하는 중고생 가운데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3%에 그쳐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더 심각한 것은 신앙의 기초다. 교회에 나오는 중고등학생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죄 사함’을 확실히 믿는지 묻자, 절반 수준인 53%만 “믿는다”고 답했다. 다만 가족이 정기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 학생들이 비율이 75%까지 올라가 가정 신앙 교육의 중요성을 보여줬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중고등부 예배에서 무엇을 가장 기대할까. 학생들의 39%는 ‘찬양’을, 35%는 ‘친구 선후배와의 만남’을 꼽았다. 반면 ‘설교’를 기대한다는 응답은 22%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흥미로운 점은 교회에 불만족스러운 이유에서도 ‘관계’가 핵심이었다는 것이다. 교회에 불만이 있는 학생들은 ‘교회 프로그램(43%)’ 다음으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27%)’을 꼽았다. 예배당을

채우기 위해서는 화려한 행사보다 학생들과 호흡하는 사역자와 건강한 모래 모인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다.

또한 교회와 학교에서 배우는 가치관이 충돌한다고 느끼는 학생이 59%에 달했으며, 과학과 윤리 분야에서 가장 큰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러한 고민을 교회 목회자나 교사와 상담하는 비율은 낮아 교회가 질문을 수용하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현재 교회에 출석하는 학생 가운데 41%가 최근 1년 사이 교회 이탈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교사와 사역자, 부모는 이를 절반 이하 수준으로만 인식하고 있었다. 실제 교회를 떠난 이유로는 ‘예배와 설교가 지루해서’가 가장 많이 꼽혀, 단순한 출석 관리보다 예배와 말씀의 질적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제시됐다.

총회 B.C.M 및 리유즈(Reuse) 사역 동참자 모집

Bright Church Ministry(이하 B.C.M 사역) 만들기 사역 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성 공동체의 교회들을 세우고 돕는
B.C.M 사역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역자를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 **B.C.M 사역의 개요:**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의 교회 보수 및 내, 외부 수리, 벽화 사역 등
- ◆ **모집대상:** 달란트가 있는 목회자 및 장로, 성도 교회나 기관
 - 특별히 코로나 이후 여름철 아웃리치 등도 교회 단위로 동참하여 연계하시면 더욱 고르고 원활하게 필요한 교회의 현장에 투입될 수 있음.
 - 일정 기간 동역자 및 동역교회 모집 후 사역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함.
 -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단 내 교회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교회들에게 힘이 되 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 **현재 동참 교회:** 강서, 두란노, 드림, 마조, 미당, 벨엘, 부평성산, 사랑의 동산 새만석, 새생명, 신소망, 신월동, 세계중앙, 한마음교회 (가나다 순)
- ◆ **BCM 사역 후원 계좌번호:** 국민은행 533301-01-115619 예성총회
- ◆ **동역문의:** BCM 사역 위원장 손항모 목사 010-8409-1210
서영원 목사 010-8440-6291

예성 총회 리유즈(Reuse) 사역 안내

리유즈(Reuse)사역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교회에 여분으로 보관되어 있는 음향, 영상기기 및 악기 등 교회 예배에 필요한 기자재를 기증받아 청소 및 정비 작업 후 필요한 교회에 보급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동참 및 후원 방법:** 교회에 보관 되어 있는 여분의 음향, 영상 장비 및 악기를 필요한 형제교회들을 위하여 리유즈사역 팀에 기증.
- 리유즈사역 팀에서 접수 후 수리 및 점검 후 필요한 교회의 신청을 받아 보급함.
- 우리 교회에는 여분으로 놓여 있지만 형제 교회들에게는 요긴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됨. 이미 일정량의 기자재가 기증되어 준비 중이며, 이를 위한 기술진과 일부 후원자들이 구성되어 정비 및 수리 진행 중임.
-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후원으로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현재 동참하고 계신 교회와 기관:** 고온, 두란노, 미당, 부평성산, 사랑나무, 새날, 새만석, 새생명, 서삼, 성은, 우리들의, 주님의, 청지기, 포근한 교회(가나다 순), 성결대학교
- **리유즈 사역 후원 계좌:** 국민은행 533301-01-115619 예성총회
- **문의:**총회 리유즈사역위원회 심상훈 목사 010-2799-3765